

<무제>

S# 1. 오프닝 / 저녁

인서트) 가족사진이 걸려있는 집안, 누군가 설거지를 하는 듯 물소리와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재깍재깍 돌아가는 벽시계.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미연의 뒷모습.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읽고 있는 정욱의 모습이 보인다.

시계 초침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신문을 넘기는 소리들이 은은하게 방을 채운다. 설거지를 거의 마무리 한 듯 식기를 물에 씻어내고 있는 미연의 뒷모습. 그때 쿵. 하고 한번의 둔탁한 소리가 울린다.

하던 행동을 멈추는 미연. 천천히 싱크대의 물을 끄고 소리의 행방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정욱 역시 정지한 듯 읽던 신문을 내리고 미연과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재깍재깍 울리는 시계 초침소리, 그리고 다시 한번 울리는 쿵 소리

두 사람의 시선 끝에는 굳게 닫힌 듯 보이는 방문이 위치해 있다. 소리는 박자를 가지며 점점 빠르게 강하게 고조되어 들려온다. 정지한 듯 자세를 유지한 채 가만히 있는 정욱과 미연.

<무제>

S# 2. 정욱의 방 / 오후

Insert) 전화를 하고 있는 정욱의 목소리. 책장에는 자폐 스펙트럼 서적들이 꽂혀있다. 그리고 그 아래칸에 나열되어있는 연도별 관찰일지. 2010년부터 22년까지 꽂혀있다. 책상위에 올려져있는 23년도 관찰일지와 옆에 놓여있는 수많은 약봉투들.

정욱 : (V.O / 착잡한 듯 저조한 목소리로) 네.. 어제 저녁에.. 한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네네. (잠깐 텀을두고) 네?.. (한숨을 내쉬듯) 음.. 아니요 그렇진 않았구요.. 일단 제가 막으면서 팔이랑 손목을 잡긴 했는데...

(Cut to)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정욱. 그의 손에는 봉대가 엉성하게 감아져 있다.

정욱 : 아...네.. 네.. 지금은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랑 최근에 혹시 제가 몰랐던 특이사항 같은게 있었나.. 해서요.. (텀을 두고) 아 그런가요..

(Cut to)

정욱의 책상 위로 아이의 어린시절 사진들이 차례대로 보인다.

선생님 : (V.O / 조심스러운 듯이) 저도 계속 재활에 신경을 쓰겠지만... 아무래도 현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증상이 조금 심한 편이라서요... 두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게 현호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Cut to)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는 정욱.

정욱 : (머리를 쓸며) 네.. 그럼 혹시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와주실수 있나요? 저랑 아내가 일 때문에 잠깐 어디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 : (V.O) 아.. 그게 사실은요.. (텀을 길게두고) 제가 내일부터 못갈...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정욱 : (덤덤한 듯 고개를 떨구며) ...네

정욱이 전화를 끊고 책상위에 휴대폰을 올려놓는다.

(Cut to)

한 노트를 꺼내 확인하는 정욱, 수많은 재활센터와 장애 자립센터의 리스트가 적혀있다. 그리고 이름 대부분에 줄이 그어져있다. 줄이 그어지지 않은 곳을 찾아 손가락으로 노트를 짚어보는 정욱. 줄이 그어지지 않은 마지막 재활센터의 이름은 ‘열린희망 재활케어센터’이다.

(Cut to)

정욱이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다시 누군가랑 전화를 하고 있다.

상담원 : (조금 귀찮은 듯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 계속 얘기가 돌고 도는데.. 지금 증상을 들어보니까 꽤나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정도면 그냥 입원시키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욱 : 아..네..그렇긴한데요

상담원 : (말을 끊고) 무슨 마음이신지는 알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지금까지 집에서 버틴게 기적인 수준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죠?

(Cut to)

전화를 하고있는 정욱.

정욱 :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안될까요?

상담원 : (답답하다는 듯) 그.. 저희라고 안 도와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진짜 애를 생각한다면 제 말대로 병원에 정식으로 입원시키는게 맞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권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한숨)

정욱 : ... (체념한 듯) 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정욱.

(Cut to)

정욱이 노트를 열어 '열린희망 재활케어센터'라는 이름 위로 천천히 줄을 긋는다. 그리고 이내 노트를 닫는 정욱

S# 3 마당 / 오후

마당 의자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정욱의 모습. 그의 뒤편으로 보이는 현관으로 미연이 나온다. 다가오는 미연을 바라보는 정욱.

정욱 : (한숨을 내쉬듯) 애는 좀 어때?

미연 : (연초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뭐..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

미연의 담뱃불에 불이 붙는다.

정욱 : (생각에 잠긴 듯) 아직까진..

미연 :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

정욱 : (고개를 떨구며) 아.. 응.. 내일부터 못나올거같다네.

미연 : (덤덤한 듯 담배를 깊에 들이킨다) ...

정욱 : (정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이번주만 세 번째인가 .. 주기도 갈수록 좁혀지고.. (담배를 한모금 머금고) 이건 부모로써 드는 생각인데.. 애를 계속 집에 저렇게 두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미연 : (정욱의 말을 되짚듯) 부모로써..

정욱 :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냥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건..

미연 : (정욱을 바라보며) 당신 솔직히 말해봐. 지금 애를 생각해서 하는말이야?

정욱 : (한숨을 내쉬며) 미연아.. 우리가..

미연 : (말을 끊으며 경멸하듯) 됐어. 못 들은걸로 할게.

미연이 꽁초를 끄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 미연을 그저 바라보는 정욱. 그때 정욱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한번 울린다. 은행에서 대출이자율을 갚으라는 독촉문자이다. 정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꽁초를 끄고, 다시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불을 붙인다.

S# 4 거실 / 늦은 저녁

늦은 새벽, 불이 꺼진 거실소파에 정욱이 홀로 앉아있다. 티비에선 무언가 상영되고 있는 듯 불빛과 소리들이 흘러나온다. 미연과 정욱의 과거영상이다.

미연과 정욱이 현호를 다정히 부르는 소리들.

Insert) 탁상 위에 올려져 있는 현호의 어릴적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는 2010년도 관찰일지.

정욱은 생각에 잠긴 듯 무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본다.

S# 5 대문 / 낮

외출 후 대문에 도착한 미연. 그리고 멈칫한다.

문앞에 붙어있는 4-5개의 민원 쪽지들. 미연은 덤덤한 표정으로 쪽지를 하나하나 떼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연에게 속삭이는 수많은 쪽지들의 향현. 미연은 호흡이 가빠지며 식은땀을 흘린다.

쪽지들의 향현도 잠시 이웃 주민이 나타난다.

이웃주민 : 저기.. 사정은 대충 알것같아서 이해 하는데요. 정도가 있지 요즘들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저도 웬만해선 참는 성격인데 말씀드리는 거에요. (미연의 반응을 보고 탐탁지 않은 듯) 제 말 이해하시죠?

미연 : (문을 응시한채 무표정으로) 네.. 죄송합니다.

미연이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현관을 향하며 땀을 닦는 미연.

S# 6 현관 / 낮

미연이 현관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내 열어붙은 듯 정지한다.

미연의 건너편으로 어질러진 집안이 보인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현호의 모습. 현호가 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미연 : (낮은 목소리로) 시이발..

S# 7 주방 / 늦은 저녁

주방 식탁에 앉아있는 정육과 미연.

미연의 팔뚝에 붕대가 감아져 있고 거즈에는 피가 묻어있다. 그리고 식탁에 올려져 있는 간단한 마른 안주들과 술병들.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정육과 미연.

미연 : (덤덤한 표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정육 : ...(말없이 술잔을 들이킨다)

미연 : 사실은 있잖아..

미연이 말하는 도중 쿵. 하는 소리가 한번 울린다. 박자를 가지고 또다시 계속 고조되는 쿵소리. 상당히 격정적으로 들려온다.

미연 : (덤덤한 듯 말을 이어가며) 아까 칼에 찔릴 때.. 아픈게 아니라 후련했다고..

정육 : 뭐?

미연 : 그냥.. 뭘가 당해야만 할 일을 당한것만 같잖아.

고조되는 쿵쿵소리. 미연이 술을 마시다 말고 식탁 옆에 놓인 약통을 집어든다. 그리고 섭취하려는 듯 물을 따라 약통을 열어 약 몇 개를 손에 집어든다.

정육 : 당신.. 지금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식탁에 놓여있는 술병들. 쿵쿵소리가 더욱 격정적으로 들려온다.

미연 : (조금 생각에 잠긴 듯 망설이다가) 그래도 좋아..

미연이 물을 마시며 약을 삼킨다.

정육 : (조금 머뭇거리다가 덤덤한 어투로) 예전히 같은 생각이야?

미연 : 뭐가?

정육 : (술잔을 채우며) 모르는척 하지마. 시설 말이야.. 이러다간 우리가 애한테 죽거나, 내가 애를 죽여버리고 말거야.

미연 : (떨리는 미연의 눈동자)...

정욱 : (술잔을 들이키며 덤덤하게) 대답하지마. 내가 대신할거니까. 이게 당신이 원하는거지?

미연 : 돈은 있어?

정욱 : 없어. (텀을두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보낼수 있는곳이 하나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쿵소리가 방을 울린다.

말없이 술잔을 들이키는 미연. 미연의 볼을 따라 눈물이 한방울 흐른다.

S# 8 집안 / 아침

분주해 보이는 집안.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

이삿짐을 싸듯 수 개의 상자에 물건을 채워넣고 있는 정욱과 미연. 정욱이 자신의 방에서 책상 위에 있던 현호의 어린시절 사진 중 하나를 골라 상자에 넣고 닫는다.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오는 정욱. 미연이 아이의 방문 앞에 서있다. 정욱도 문 앞에 선다.

정욱 : (미연이 아닌 다른곳을 응시하며) 가야지 이제는.

미연 : ... (정욱을 응시하며) 그렇게 정없게 얘기하지 말란말이야.

정욱이 문을 열기위해 방 문고리에 손을 얹으려 한다. 그러자 정욱의 손목을 잡는 미연.

정욱 : (미연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할게.

미연 : ...

정욱이 방문을 연다. 그리고 방문을 열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현호.

현호가 뛰쳐나가며 정욱과 미연을 밀친다. 넘어지는 정욱과 미연. 그리고 현호의 뛰쳐나가는 발에 격하게 쓰러지는 짐 상자. 싸놓은 물품과 현호의 어릴적 사진이 같이 쓸어져 이내 깨지고 만다.

그대로 현관을 나서 집 밖으로 향하는 현호. 미연과 정욱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S# 9 집 앞 / 아침

뒤늦게 현호를 쫓아가는 정욱과 미연. 현관을 뛰쳐나간 현호가 대문 밖으로 향한다.

그리고 현호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인다.

(Cut to)

달려오다 천천히 멈추는 미연과 정욱.

(Cut to)

Insert / 달리샷) 자동차 앞 범퍼에 묻어있는 현호의 헬흔. 그리고 무표정으로 정지한 채 서있는 미연과 정욱의 얼굴.

취죽은 듯 조용한 적막 속에 새소리가 울려퍼진다.

(Cut to)

롱샷

(Cut to)

자동차 운전자가 울상을 지으며 내리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현호의 시신을 흔든다. 아무 미동도 없는 현호. 운전자가 이내 누워있는 현호의 시신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한다.

(Cut to)

미연의 손에 들려있는 현호의 깨진 사진.

S# 10 공원 벤치 / 낮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정욱과 미연. 덤덤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앉아있다.

정욱 : (덤덤하게) ...왜 울지 않았던거야?

미연 : ...뭐?

정욱 : 왜 울지 않았던거냐고... 그때

미연 : ...그러는 당신은

정욱이 말없이 정면을 응시한다. 둘 사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러다 무언가 발견한 듯 한쪽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미연. 이내 정욱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한다. 그들의 시선 끝에 단란해 보이는 가족 한쌍이 보인다.

화목한 가족 한쌍이 행복한 듯 웃음을 지으며 지나간다. 그리고 정육과 미연이 무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한다.